

## 고모, 고모부역 지정 대사

노랑 형광펜 : 고모 역

초록 형광펜 : 고모부 역

명준

고모,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한데요.  
사실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 
아시잖아요. 제가 죽으면 어머니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..  
그래서, ..... 제가 통장 보내드릴게요.  
얼마 없긴 한데, 이걸로 어머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 
(결국 울먹인다.)

저한테 시간이 없어요. .... 시간이 턱도 없이 부족해요 네?

고모(60대, 여성)

... 이미 네 어머니랑 남남으로 살기로 한 거 너도 알잖니.  
이런 전화 받으면 누구든 당황스럽지 않,  
(전화기를 뺀 듯 작은 소음이 난다.)

고모부 (60대, 남성)

그러게, 전작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는 그-렇게 싫다고 하더니!  
어차피 치매 걸린 사람, 두고 살아봤자 오래 살지도 못한다더러. 어?  
급방 죽을 거 그냥 찾지 마.

명준

제가, 제가 어떻게 그래요...

고모

... .. 미안하다.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게 하지 말아줬으면 해. 택배도 보내지 말고  
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다.